

우주는 150억 년의 역사를 가지며, 45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45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대단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星]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고 있으며 지금은 전 지구가 혹성으로 변해가는 시점이다. 우리가 가족에게 쏟는 온정을 도시와 이웃에게 쏟는다면 도시는 더욱 살기 좋아질 것이다.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도시는 개체가 집단을 이루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모로코의 집을 살펴보면 오직 재료가 흙밖에 없으므로 주위에서 쉬고 있는 흙을 쌓아 올려 외부 세계와는 하나의 출입구를 두고, 가운데 중정을 두어 최소한의 것으로 최소한의 쉼터를 만드는 정신이 있는데 인간이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경이로운 사건이다.

이란의 경우

이란에 있는 각기 다른 도시들을 살펴보면 자기들의 기후적 조건들을 최대한 자기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제한된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개별적인 단위들은 전체를 닮아 있고 전체는 개별적인 단위를 닮아 있는 곧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경우

우리나라의 서울은 풍수지리설에 입각해 지어졌는데, 인공위성 사진으로 살펴보면 왕이 사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왕이 남쪽의 서울을 바라봤을 때 좌측이 동쪽으로 그곳에 종묘를 두고(=), (= :사를 잘하게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곳) .

그러나 서울은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단절을 이루었고 점차 서울이라는 도시가 숫자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서울은 끊임없이 파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로써 과거는 무시된 채 늘 현재만 있는 도시이다.

과거 장소성의 의미 철폐

서울은 과거의 장소성을 간직하는 건물들은 철거하고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이 식민지 시대의 잔재물과도 같은 건물이 더욱 굳건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성을 상실한 국회의사당 건물 속에서 올바른 정치가 실현될 수가 없다.

도시 파괴= 역사 파괴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도시의 흔적을 파괴하고 있으며, 도시의 흔적을 파괴함은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래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 가회동에 70 . 즉 통제가 없고 자본의 논리만 존재하며 과거를 부수는 행위를 쉽게 하고 있다.

도로와 건축이 만나는 곳에 사람과 차가 들어가는 입구만 있을 뿐 그 안에 누가 사는지 어

편 삶이 있는지 보여지지 않고 있다.

, 공과 사가

만나는 곳에 정체성이 존재하나 여기에는 단절만 있다.

우리는 서양에서 이미 검증된 역사를 가지면 우리도 서양인이 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대기업이 조장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조절하고 있다.